

안녕하세요. 탄자니아의 이성구/정미라 선교사입니다.

벌써 11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이젠 제법 추울 것 같습니다. 이곳 다레살렘은 12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더워서 지금부터 마음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지도 제법 되다보니, 그 지겨웠던 겨울도 그립고 눈도 그립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저희 아들 영 (Brandon)이 거의 두달 정도 이곳에와서 이런저런 사역지도 돌아보고 또 사역도 감당하며 좋은경험을 쌓고 돌아갔습니다. 아들 영은 이곳에서 오전에는 정미라 선교사를 도와 유치원사역을 돋고 오후에는 대학산하에 있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한 달 정도 하였습니다. 또 영이 자기의 특유한 피플 스킬(people skill)을 이용하여 이곳 현지인들과 많은 특별한 만남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고 이곳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를 갖는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영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성구선교사 및 UAUT 대학소식

새 학기를 맞아 공대학장으로서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오시기로 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못오시게 되는 바람에, 이곳 현지에서 교수를 채용하고 훈련시키는일로 개학하기 전부터 바빴습니다. 실력있는 교수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곳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교수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성구 선교사는, 대학 필수 과정인 UAUT Chapel Service 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지식만 가르친다면, 그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비전없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는커녕, 그들이 배운 세상 지식으로 자기네만 더 잘먹고 더 잘살기위해, 더욱 똑똑하고 영악한 부정부패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hapel Service 외에도 매주 일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연합대학은 산하에 기술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학교는 한국 대구 동신교회의 전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동신교회에서 파송되어 봉사하고 있으며, 교사들과 교장등은 현지인들로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지인들에게 직업을 창출해줄수있어서 이곳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학과 중학교 그리고 기술학교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도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선교사는 일주일정도 탄자니아의 다른 사역지를 둘러볼수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상태가 열악한 버스를 타고 며칠씩 가야 하는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기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비포장 산길에서 버스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같이 안전하게 돌아 왔습니다. 물론 가방에있던 컴퓨터가 대신 죽어줬지만.... 20 명정도 탈수있는 버스에 어린아이들까지 30- 40 여명이 구겨져타고 가는 버스였으니 보기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안전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저희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이곳 주민들은 늘 위험을 안고 살아 가야 합니다.

UAUT 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의 완공을 위해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완성되어 단기 선교사들이 마음놓고 지낼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스태프 하우스도 거의 완공되가고 있습니다.



정미라선교사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사역을 하고 있고 오후엔 스왈리어를 배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편지에서 사진과 함께 말씀드린, 목에 혹이 있던 에디라는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목근처에 있었던 혹의 원인은 기생충이었습니다. 기생충이 몸속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머리쪽으로 올라가던 중 정미라 선교사가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이 없어진 에디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학생중의 한 명인 야후보라는 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매와 앞을 전혀 못보는 엄마,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환경이 비참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함께 사는데, 창문은 그대로 뻥 뚫려있고 (이곳은 모기때문에 창문이 뚫려있으면 위험), 바닥은 시멘트도 아닌 흙바닥에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다 떨어진 더러운 스폰지를 깔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구 선교사와 의논하여 바닥에 시멘트를 깔아주고 창문도 달아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집은 야후보 가족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짓다가 못 끝낸 집을 집 보호 차원에서 그냥 야후보가족에게 살라고 빌려준집이라 (즉, 주인집을 수리해주는 꼴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야후보 가족이 이사를 가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침대 두 개와 옥수수 가루 한포대 (한 달 식량)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곳은 침대같이 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비싸서 사람들은 땅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거나, 얇은 스폰지를 바닥에 깔고 잡니다.



유치원의 다른학생 미티는 대여섯살 먹은 여자아입니다. 머리는 군데군데 기생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땀통이 성한 곳이 없을만큼 많고 입안은 하얀 백태가 끼어있어서, 혹시 에이즈에 걸려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아이입니다. 미티의 집을 방문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정미라선교사가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 못 움직이는 바람에 다음주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런 아이들인데 방문해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고 그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서, 그중 가장 급하고 정말 안 도와주면 위험한 아이들,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주로 정미라 선교사가 방문하고 도움을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공부를 곧잘하는 아이들은 따로 뽑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유치원이지, 15 살짜리 아이까지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모두 학교 문턱도 못가본 아이들입니다. 정미라선교사는,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먹기위해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은 정미라 선교사가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기타 소식들.....

- UAUT 는 실력과 열정이 있는, 가슴이 뜨거운 지도자들과 교수들을 열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교수도 학생들도 모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다레살렘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사이만 해도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대학 단기선교팀 젊은 남자 선교사중 한 명이 대낮에 길을가다가 강도 4 명에게 차안으로 납치되어 눈을가린채 은행에 있는돈 다 털리고 귀중품은 다 강탈당한 후 길거리에 버려진 일이 있었고, 또 저희 대학교 다른 선교사님도 최근에 차를 타고가는중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여서 현금을 비롯한 귀중품을 모두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소속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이곳 한인교회 목사님댁은 지난 한달새 세번이나 폐강도들이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등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곳 선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현지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느헤미야라는 19 살짜리 학생이 있는데, 꽤 똑똑하고 괜찮은 청년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고 있어서 저희가 느헤미야의 학비를 대주기로 하고, 이성구선교사는 느헤미야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따로 집에서 과외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비전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수준이 열악한 현지인 학교가 아닌 UAUT 산하 소속 사립중학교 (King's Vision Secondary School)에 보내기로하고 입학금을 저희가 미리 내고 내년 1 월초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장차 UAUT 대학으로 진학할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며 돋고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장차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여기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투자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살면서 배워가고있습니다. 대신 느헤미야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집 마당을 청소하도록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면 그에게 거지근성을 키워 주게되고, 공짜로 받는 자는 아무리 귀한 것을 받더라도, 받는것들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도와주더라도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것을,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하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배웠고 지금도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땅에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들이 맷게 하실줄 믿습니다.

- 캐나다에있는 청이는 금년 10 월에 University of Waterloo (Architecture)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Architecture Firm 에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진로의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정미라 선교사는 장티푸스와 다른 질병에 걸려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다시 유치원에 나갑니다. 두달 전에도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걸려 고생했었는데 다시 걸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에 걸려있는 아이들과 너무 가까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 가난과 무지의 땅 아프리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길 후원자들이 많이 나올수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북미와 한국에 사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이 받은 복을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불가결 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역은 많은 물질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 어린 아이의 배고픔의 해결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교까지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배출되어 이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롱텀 미션을 믿으며 그 사역을 위해 지금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거룩한 일을 해야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원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실걸로 믿으며, 그때는 보다 더 열악한 오지에도 학교를 세워야 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법

1. Tanzania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

Exim Bank USD Account

Exim Bank Swift: EXTNTZTZ

UNIV ID 370780

Account Number: 0081023829

Account Holder's name: Sungkoo Lee/Mira Lee (Tel: 255 788 003 651)

2. Canada로 송금하는 방법

Toronto Korean Bethel Evangelical Church

1155 College St. Toronto ON M6H 1B7

Pay to the order of: Toronto Korean Bethel Evangelical Church (이성구/정미라 선교사 앞)

3.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국민은행 331337-04-002245 (탄자니아대학교후원회: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 앞)

Contact Information

Email: lordlovesafrica@gmail.com

Lee Sungkoo: 255-0782-003-651 / Lee Mira: 255-0788-429-606